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성격 및 가정환경의 특성 연구: 법대 및 의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Individual and Family Background Predictors  
of Non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 among  
Korean College Women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김 용 미

Won Kwa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structor: Yong Mi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ollege women in regard to personality and family background characteristics. Subjects were 180 college women majoring in Education, Nursing, Medicine, and Law. ANOVA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nontraditional wo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in academic achievement, SES, and parental support and influence than traditional women. SES,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parental support and influence were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of non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 Suggestions were made regarding precautions and need of cross-cultural study.

## I. 서 론

급속히 발달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그 변화를 가능케 해 온 몇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를 든다면 높은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경제력의 신장과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여성의 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산업의 각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1990년 2월 현재 약 8백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직업별 취업자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8.4%에 이르는 54만 4천명이 교육, 산업, 행정, 연구, 의료, 언론, 법조계등의 기술 및 관리직을 포함한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거의 2~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전문직 여성의 비율은 지난 83년에 23만 5천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 가운데 4.1%에 불과하였으나 86년에는 35만 2천명으로 5.7%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지난 83년이후 불과 7년사이에 전문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배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20년 사이에 여성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 고등인력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은 국내외에 공통된 현상이다(김용미, 1989; Auster & Auster, 1981; Norwood & Waldman, 1979).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여성 취업이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성의 직업 발달 전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취업여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에는 남성주도적이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하 「비전통적 여성」이라 부름)이 성격 특성과 출신가정의 환경면에서 미취업 여성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주도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이하 「전통적 여성」이라 부름)과 다른 점이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김용미, 1989; Betz & Fitzgerald, 1987; Kim, 1988; Levitt, 1971; Morrison & Sebald, 1974; Tangri, 1972; Waddell, 1983; Yanico & Hardin, 198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점

을 감안할때 우리나라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활발해지는 근래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국내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두 차례의 연구논문(김용미, 1989; Kim, 1988)을 통해 법률가 및 의사직을 준비하는 미국 여대생의 성격과 가정환경의 특성을 연구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와 동일한 이론적 틀, 연구집단, 검사 도구, 분석기법 등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여대생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개인의 성격 특성과 출신 가정의 환경면에서 전통적 여대생과 비전통적 여대생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2) 젊은 여성의 직업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및 가정 환경의 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혀내는데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선행연구(김용미, 1989)와 동일하게 발달론적 환경이론(Developmental-Contextual Perspective)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인의 직업성향의 발달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상호관계를 갖는다. 개인의 직업에 관한 계획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정치 및 역사상의 변화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동기, 성격 특성 역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 및 인간 상호 관계에 영향을 주고 또한 받는다(Vondracek, Lerner & Schulenberg, 1986). 그러므로 개인의 직업 진로 선택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징은 물론 출신 가정의 배경이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작용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이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여성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10여년간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용미, 1989; Betz & Fitzgerald, 1987; Kim, 1988; Waddell, 1983; Yanico & Hardin, 1981). 이들 「비전통적 여성」들은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책임있는 위치를 맡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수준이나 직업에 대한 준비가 뛰어나다.

성격 특성면에서 살펴보면, 비전통적 여성들은 다

른 여성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소유하고 있다(Fitzgerald & Betz, 1983; Morrison & Sebald, 1974). 비전통적 여성 또한 전통적 여성과 비교해 볼때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적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김용미, 1989; Kriger, 1972; Tangri 1972).

지적 성취가 남성적 과업이라면 인간관계에 관한 기술은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Elder & MacInnis(1983)의 연구와 Veroff & Feld(1970)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전통적 여성은 지적 영역에서 수행 능력이 뛰어난데 비해, 전통적 여성들은 우월한 사교술과 뛰어난 사교성을 가진 점이 보고되고 있다.

통제성의 위치(Locus of Control) 역시 전문직 여성을 구별짓는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연이나 운(運)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떠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내적 통제성은 비전통적 여성들 가운데 훨씬 높다(Crump, Hickson & Laman, 1985; Houser & Garvey, 1985; Jones & Lamke, 1985). 과업지향적이며 도구적인 특성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남성성은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을 갈라 놓는 가장 강력한 성격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전통적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심리적 남성성이 뛰어나며,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골고루 갖춘 양성성(Androgyny)에서도 우월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김용미, 1989; Houser & Garvey, 1985; Lemkau, 1979).

비전통적 여성들은 전통적 여성과 비교해 볼때 출신 가정의 환경면에서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비전통적 여성들은 출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SES)이 전통적 여성보다 우월하며(김용미, 1989; Fitzgerald & Betz, 1983; Houser & Garvey, 1985) 비전통적 여성의 가족관계 역시 가족으로부터 훨씬 많은 지지와 이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여성에 비해, 비전통적 여성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가깝고 미래의 진로에 대해 부모의 이해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상적인 직업 성취의 본보기(model)가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Fitzgerald & Betz, 1983; Standley & Soule, 1974).

이상의 연구 결과를 놓고 볼때, 우리나라 여대생

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여성주도적인 직업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여대생과 비교해 볼때, 남성주도적인 전문직업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비전통적 여대생들은 :

연구가설 1.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  
연구가설 2. 보다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나타낸다.

연구가설 3. 보다 우수한 학업성적 성취도를 보인다.

연구가설 4. 보다 낮은 정도의 사교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가설 5. 보다 강한 내적 통제성을 보인다.

연구가설 6. 보다 높은 심리적 남성성을 보인다.

연구가설 7. 출신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보다 높다.

연구가설 8. 미래의 직업 목표에 대한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가 보다 높다.

위와 같은 연구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마지막 연구문제는 :

연구가설 9. 상기 변수들이 젊은 여성의 비전통적인 직업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은 어떠하며 가장 강력한 판별변수는 어느 것인가?하는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 Ⅲ. 연구대상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지역의 국립 및 사립대학 3, 4학년(의과대학의 경우는 본과 1, 2학년)에 재학중인 180명의 여대생이었다. 전통적인 여대생 집단은 각각 유아교육( $n=15$ ), 가정교육( $n=34$ ), 교육학( $n=13$ )을 전공하는 사범대학 재학생과 간호학 전공자( $n=30$ )로 구성된 92명이었다. 비전통적 여대생 집단은 법과대학( $n=29$ ) 및 의과대학( $n=59$ )에 재학중인 88명의 여대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의 수집 과정은 사범대학, 간호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의 사무직원이나 교수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여 해당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400매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이중 294매가 회수되어 73.5%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5문항 이상 무응답을 한 경우와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설문지를 제외한 180매(75%)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 여대생의 직업 성향 발달에 관한 설문」은 16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설문지는 연구자의 선행연구(김용미, 1989; Kim, 1988)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을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다.

첫 부분은 응답자의 나이, 종교, 결혼여부, 자녀의 수등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장래의 직업에 관한 계획 및 학업성적 성취도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부분은 출신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 부분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을 번역한 것이다. 이 척도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다(Crandall, 1973; Silber & Tipett, 1965; Tipett & Silber, 1965). 응답자는 각 문항에 「전적으로 그렇다」(1점), 「그렇다」(2점), 「그렇지 않다」(3점),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4점) 중의 하나를 골라 대답하였다.

다음은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Gough, 1975) 중에서 「독립적인 성취감」(AI)와 「사교성」(SOC)의 2가지 척도를 골라 번역한 것이다. CPI는 전체가 18가지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생활과 인간 상호관계에 중요한 성격 특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응답자는 각 문항을 읽고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동의할 경우 1(「그렇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그렇지 않다」)에 표를 하였다. AI척도는 32문항으로서 자율과 독립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성취감을 고무시키는 흥미와 동기에 관한 요인들을 밝히내기 위한 척도이다. SOC척도는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적극적인 성품의 소유자

를 골라내기 위해 고안된 척도이다. AI 및 SOC 척도 모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도구이다(Gough, 1975).

학업 성적 성취도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전체의 순위와 대학 성적의 전체 평점으로 산출되었다. 고등학교 전체 순위는 1(「상위 5%이내」)부터 9(「70%미만」)까지 나누었다. 대학의 전체 평점은 4.50을 만점으로 1(「4.50(A+)」)부터 9(「0.99미만(F)」)로 분류했다. 이 두가지 성적을 합하여 학업 성적 성취도가 결정되었다.

다섯째 부분은 통제성의 위치에 관한 척도인데, Rotter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Rotter, 1966)을 번역해서 사용했다. 이 척도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그 행동이 강화되는가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가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6문항의 보충항목이 포함됨). 응답자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에 관한 두개의 서술문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Rotter(1966)는 이 척도에 관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성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Bem Sex-Role Inventory(Bem, 1974)로서 많은 사람들이 남성 또는 여성에게 바람직한 특성으로 간주하는 점을 개인이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성역할 성향을 가늠하고자 했다. 1974년에 60문항의 BSRI가 처음 발표된 이후 Long Form의 단점을 보완한 Short Form이 1979년에 만들어져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문항으로 구성된 Short Form이 번역되어 사용되었다(Bem, 1979).

응답자의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SIS)은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장의 직업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1(「국졸」)부터 6(「대학원 박사학위」)까지로 측정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Hollingshead(1975)의 「사회적 지위척도」에 따라 1(「농장노동자, 서비스업종의 육체 노동자」)부터 9(「대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주요 전문직 종사자」)까지로 분류되었다.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는 다음 8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부모 두 사람이 각각 응답자의 대학전공 및 장래 직업목표에 대해 얼마나 뒷받침과 격려를 했는가, 부녀 및 모녀관계가 얼마나 가

까운가, 부모가 각각 성공적인 직장인의 본보기로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했다.

#### IV. 연구결과

전통적 집단과 비전통적 집단의 나이, 종교, 결혼 여부, 자녀의 수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비교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 있는 두 집단은 동일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된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NOVA와 판별분석이 실시되었다. 가설 1에서 가설 8까지의 ANOVA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가설 3, 7, 8이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예상된 바와 같이, 비전통적 여대생이 학업성적성취도, 출신가정의 SES,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 수준에서 전통적 여대생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설 1, 2, 4, 5, 6은 예상된 방향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표 2에서는 연구문제 9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표 1〉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대생의 평균과 표준편차 비교

(n=180)

변 수	전통적 여대생 (n=92)		비전통적 여대생 (n=88)		df <sup>1</sup>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26.01	3.51	26.22	3.28	1,171	.16
성취동기	42.87	7.38	44.38	8.41	1,178	1.63
학업성적 성취도	13.44	1.99	14.18	2.51	1,151	4.07*
사교성	39.09	9.72	39.84	11.29	1,178	.23
통제성의 위치 <sup>2</sup>	12.61	3.77	12.23	3.48	1,178	.50
심리적 남성성	4.15	.81	4.35	.92	1,175	2.37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수준	11.70	3.06	13.58	3.20	1,162	14.76***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	20.03	3.84	22.03	4.54	1,164	9.37***

주) 1. df이 다른 것은 각 변수에서 missing data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2.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 통제성을 가르킨.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대생을 판별하는 변수의 단계별 판별 분석의 결과

단계	변 수	다변수 F-ratio	Wilks' Lambda
1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	10.42	.92
2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수준	8.21	.88
3	학교성적 성취도	6.82	.86
4	성취동기	5.86	.84
5	심리적 남성성	5.38	.82
6	사교성	4.67	.81
7	내적통제성	4.20	.80
8	자아존중감		

F insufficient to enter analysis beyond this step ( $F < 1.00$ )

〈표 3〉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대생을 판별하는 판별함수의 표준화 점준 상관계수

변 수	함수 1의 계수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수준	.53
심리적 남성성	.49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	.46
성취동기	.37
사교성	-.30
학교성적성취도	.29
내적통제성	-.25
Variance explained by classifying variables : 19.96%	

〈표 4〉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대생 집단의 분류 결과 확률의 비교

Actual Group	Number of Cases	Predicted Group Membership	
		전통적 여대생	비전통적 여대생
전통적 여대생	92	58 63.0%	34 37.0%
비전통적 여대생	88	27 30.7%	61 69.3%

주) Percent of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 66.11%

Percent probability of correct classification : 50.00%

판별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었다. 8개의 변수중에서 1개의 판별함수가 산출되었다(Wilks' lambda=.80  $X^2=26.83$ ,  $p<.001$ ). 단계별 판별분석을 실시했을 때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가 첫단계에 포함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출신가정의 SES, 학교성적 성취도, 성취동기, 심리적 남성성, 사교성, 내적통제성의 순서로 단계별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자아존중감은 1.00수준에서 설정된 F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3은 판별함수에 따른 직업성향에 관한 표준 판별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뛰어난 판별변수는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53)이었고 둘째로 강력한 변수는 심리적 남성성(.49)이었다. 그 뒤를 이어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46) 성취동기(.37), 사교성(-.30), 학교성적 성취도(.29) 그리고 내적 통제성(-.25)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변수들은 전체 변량의 19.96%를 설명하고 있다( $RC=.45$ ).

판별 분석의 결과 위의 판별함수에 의해 실제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정확하게 분류된 확률은 66.11%로서 우연의 확률인 50%보다 훨씬 높은 확률을 보였다(표 4 참조).

## V. 결론 및 제언

가설 1부터 가설 8까지는 외국에서 실시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가설에 포함된 여대생의 성격 및 가정환경의 특성에 관한 변수들은 연구자의 선행연구(김용미, 1989; Kim, 1988)에 포함되었던 것들로서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대생 집단을 의미있게 구별하는데 유용한 것들이었다.

예측된 바와 같이 비전통적 여대생 집단은 위의 8개 변수 모두에서 전통적 여대생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출신가정의 SES, 부모의 뒷받침

과 이해, 학업성적 성취도의 3변수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즉, 비전통적 여대생의 경우, 출신가정의 사회경제 수준이 전통적 여대생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도 보다 많이 받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성적 성취도 역시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사교성, 내적 통제성, 심리적 남성성에 있어서도 비전통적 여대생 집단이 전통적 여대생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위의 ANOVA 결과를 놓고 볼때, 우리나라 여대생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법조계 및 의료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여대생들은 개인의 성격 특성보다는 출신가정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내적 통제성, 사교성 등의 성격 특성보다는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 등 가정환경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다른 개인적 특성보다는 학업성적 성취도가 비교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점이 주목된다.

가설 9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판별분석의 결과를 살펴 보면 1, 2단계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 역시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아니라 가정환경에 관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가 맨 처음 단계에 포함되었고 출신 가정의 SES가 두번째 단계에 포함되었으며, 학업성적 성취도와 성취동기가 연이어 분석에 포함되고 있다. 판별함수의 표준판별계수를 살펴보면 출신 가정의 사회경제수준이 가장 우월한 변수로 나타났고 심리적 남성성에 이어서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처럼 판별 분석의 결과에서도 출신 가정의 배경에 관한 변수들이 두 비교 집단간의 판별 능력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성취동기와 학교성적 성취도와 같은 개인의 지적 능력에 관한 변수들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대생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지배적이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법조 및 의료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비전통적 여대생 집단」은 전통적으로 여성주도적이며 사회적

제적 지위가 중류 정도인 교직 및 간호 직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통적 여대생 집단」에 비해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훨씬 우월하며, 부모의 뒷받침과 이해가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여러가지 성격 특성면에서도 비전통적 여대생이 직업인으로서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특성(예를 들면, 높은 심리적 남성성, 강한 성취동기감 및 내적통제성 등)을 전통적 여대생에 비해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성격 특성보다는 출신가정의 환경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몇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의 문화적 보편성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들 즉, Rosenberg Self-Esteem Scal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Rotter Locus of Control Scale, Bem Sex-Role Inventory 등은 모두 미국에서 고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두 번역하여 사용했다. 이들 중 몇몇의 도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이것을 포함하여 다른나라에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국내에서 번역하여 사용할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정서의 차이나 문화적 감각, 정서표현의 차이, 성역할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시작되어 수년간에 걸쳐 특정한 집단을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일련의 연구과제의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나, 다른 독립된 연구과제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된 검사도구를 사용할 때는 문화적 차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본 연구대상자의 지역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국·사립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울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경우 비전통적인 직업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성격 특성 및 가정환경 요인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시키는데 좋

은 뒷받침이 될 것이다.

세제, 변화하는 국내의 정세와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가정학의 연구분야에서도 비교문화적인 연구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학문의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학 분야에서도 비교문화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특히 서구의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이 우리나라 가정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비교문화적인 연구 결과가 점차 축적됨에 따라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생활습관,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며, 또한 지식의 지역성을 탈피하여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용미. 전통적으로 남성주도적인 전문직 진출을 희망하는 여대생의 성격 및 가족환경의 특성 연구 : 법률가 및 의사직을 준비하는 미국여대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7(3), 1989, 173-182.
- 2) Auster, C.J., & Auster, D. Factors influencing women's choice of nontraditional careers : The role of family, peers, and counselor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9, 1981, 235-263.
- 3)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sexu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974, 155-162.
- 4) Bem, S.L. Theory and measurement of androgyny : A reply to Pedhazur-Tetenbaum and Locksley-Colton critiq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979, 1047-1054
- 5) Betz, N.E., & Fitzgerald, L.F.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New York : Academic, 1987.
- 6) Crandall, R. The measurement of self-esteem and related constructed constructs. In J.P. Robinson & P.R. Shaver (Eds.),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Ann Arbor, MI :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73.
- 7) Crump, B.R., Hickson, J.H., & Laman, A. Relationship of locus of control to achievement and self-concept in education majors. *Psychological Reports*, 57, 1985, 1055-1060.
- 8) Elder, G.H., & MacInnis, D.J. Achievement imagery in women's lives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983, 394-404.
- 9) Fitzgerald, L.F., & Betz, N.E. Issues in the vocational psychology of women. In W.B. Walsh & S.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 Vol. 1(pp. 83-159), 198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0) Gough, H.G. *Manual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5.
- 11) Hollingshead, A.B. *Four 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New Haven : Yale University, 1975.
- 12) Houser, B.B., & Garvey, C. Factors that affect nontraditional vocational enrollment among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1985, 105-117.
- 13) Jones, S.L., & Lamke, L.K.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orientation, self-esteem, and sex-typed occupational choice of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1985, 145-152.
- 14) Kim, Y. Individual and family background predictors of nontraditional career orientation among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88, Texas Tech University(Lubbock, Texas).
- 15) Kriger, S.F. Need achievement and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of career women and homemak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2, 1972, 419-432.
- 16) Lemkau, J.P. Personality and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women in male-dominated fields : A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 1979, 221-240.
- 17) Levitt, E.S. Vocational development of professional Women : A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 1971, 375-385.
- 18) Morrison, R.F., & Sebald, M. Personal characteristics



- differentiating female executive from female nonexecutive persona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1974, 656-659.
- 19) Norwood, J.I., & Waldman, *Women in the labor force: Some new data series*.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79.
- 20)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1) Rotter, J.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 80, 1966, 1-28.
- 22) Silber, E., & Tippett, J.S. Self-esteem : Clinical assessment and measurement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6, 1965, 1017-1071.
- 23) Standley, R., & Soule, B. Women in male-dominated professions : Contrasts in their personal and vocational histo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4, 1974, 245-258.
- 24) Tangri, S.S. Determinants of occupational role innovation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972, 177-199.
- 25) Tippett, J.S., & Silber, E. Self-image stability : The problem of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17, 1965, 323-329.
- 26) Veroff, J., & Feld, S. *Marriage and roles*.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0.
- 27) Vondracek, F.W., Lerner, R.M., & Schulenberg, J.E. *Career development : A life-span developmental approach*.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6.
- 28) Waddell, F.T. Factors affecting choice, satisfaction, and success in the female self-employe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23, 304.
- 29) Yanico, B.J., & Hardin, S. I. Sex-role self-concept and persistence in traditional vs. nontraditional college major for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8, 1981, 219-227.